

연중 제 18 주일

기도서 405 번(B해)
 제1독서 : 출애 16, 2-4, 12-15
 제2독서 : 에페 4, 17, 20-24
 복음 : 요한 6, 24-35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요한 6, 27).

▶ 감 론



생명의 빵

이 상 섭 신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상징한다.

선택된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중 하느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먹었다(출애굽기 16, 35). 또한 하느님께서 만나를 언약의 계속에 넣어 보관하며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게 하셨다(출애굽기 16, 32-34)

「만나」는 하느님 말씀의 상징이 되었다(신명기 8, 3; 마태오 4, 4). 그리하여 「만나」는 믿음과 은총을 주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체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늘의 양식(시편 77, 24)과 의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만찬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묵시록 2, 17). 예수님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요한 6, 32-33).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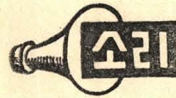
예수님은 「만나」와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양분을 섭취시켜 주는 유일한 「참된 빵」이며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의 빵인 성체는 신자들이 약속된 땅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 힘이 되어 주는 음식이다(요한 6, 54).

성체는 믿음에 대한 최고의 성사이며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6, 53).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시며(요한 6, 26-51). 특별히 이 「만나」는 당신의 살과, 몸과, 피라고 하신다(요한 6, 52-60).

성 바오로는 「만나」를 영적 양식이라 부르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영적 음료라 부르면서 이들을 성체의 예시로 보았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께 일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려 가는 여정에서 영생의 빵을 먹고 그 빵에 동화되어야 하며 영적 음식은 영적으로 소화시켜야 한다. 천상의 것을 갈구하여야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을 수 있다.

생명의 빵을 소화하여 여기에 동화되려면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고 자신을 하느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바치며, 특히 남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는 삶을 봉헌하여야 한다. (무주 주임신부)



부서진 십자가

옛날에 일본에서 정부가 천주교회를 박해할 때, 그들은 울퉁은 천주교 신자를 가려내는데 묘한 편법을 썼다고 한다. 그 하나는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어 놓고 천주교 신자들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 악랄한 울가미때문에 자신의 짧은 생명에 애착을 가진 자들은 심장 뛰는 소리에 귀를 막고 십자가를 짓밟아 모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사람들은, 비록 땅바닥에 그어진 십자가지만, 그걸 밟을 수 없어서 비켜 지나갔고, 그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지닌 의미는 실로 크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킨 구원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된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정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순교자들도 땅바닥에 그어진 십자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엇그제 이 고장 고산에서도 십자가를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던 한 사제가 크게 다쳤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의 축산(소) 정책에 문제가 있어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해진 정부당국의 무분별한 저지 때문이었다. 이날 사제가 들고있던 십자가를 빼앗으려던 경찰의 행위는 분명한 종교탄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우리는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강경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인에 대한 규명없이 결과만을 놓고 힘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방식과 강경책은 불행만을 부르기 때문이다. 고산에서 부서진 십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 십자가여!

숨 정 이 산 채



□보리수매 정책과 소값 폭락에 대한 성명서□

우리 농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농민은 식량생산자로서 최소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수출위주의 공업화 정책은 저노임정책을 통해 소수 독점제벌만 살찌우고, 농민은 저노임 유지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그동안 적자농사로 쌓인 빚더미는 갚을 능력을 훨씬 넘어서 호당 300여만원 이상이나 된다. 더욱 비참한 현실은 산더미 같은 빚더미로 고심하다 죽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값 폭락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헐박범이 된 농민도 있고, 전채산을 털어 소를 먹이다가 망하여 목숨을 끊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숫자 놀음으로 2000년대의 휘황찬란한 농촌 미래상만 떠들면서 농민의 당면문제를 일시적으로 우물우물 덮어버리려 하고 오히려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천만농민의 울분을 극에 이르게 하고 있다.

□폐농정책을 강화한 보리수매가

정부는 올해 보리수매 가격을 작년보다 5.5% 인상한 가마강 36,360원(정곡 2등급 76.5kg)으로 결정하고 “중농의지를 반영”한 수매가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매가는 지금까지의 적자수매가를 기준하여 몇% 이상한 것 자체가 의미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사한 82년도 보리 생산비보다도 1,400여원이나 낮은 값이다. 특히 지난해 보리수매 포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재배한 농민의 삶은 매우 절박한 것이었는데도, 2년전 생산비도 안되는 값으로 수매하는 것은 농민을 계속 파탄의 길로 내모는 폐농정책이나 다를바 없다.

보리는 주곡이 하나로 식량 수급 뿐만 아니라 동계작물로서 단경기 식량공급원이기 때문에 국토자원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계속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10년전에 비해 맥류생산량은 1/4로, 재배면적은 1/3로 감소시켜 식량자급도를 50%로 떨어뜨리고 농가소득을 줄여들게 했다. 울 보리 수매가는 노는 땅이 있어도 식량생산을 포기하는 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다.

□소사육 농가의 피해는 전액 보상되어야 한다

2년째 폭락시세를 가고 있는 소값 폭락은, 지난 5년동안만 해도 20만 7천마리에 달하는 외국소와 2억 6천 8백 33만여근에 이르는 외국쇠고기 수입, 40여만두가 넘는 대책없는 소입식 등 개방농정이라는 이름아래 행해진 무책임한 농업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그동안 외국소를 도입하여 마리당 26만원~47만원씩 농민을 상대로 이익을 남기고, 쇠고기를 수입하여 지난 5년간만 해도 2천 4백 48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긴 당국이, 이로 인한 농민 피해에 대해서는 용자금 상환 연기 등 농민피해 압박을 시기적으로 조금 완화하는 미온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업 부실운영으로 은행 및 상환능력을 잃은 기업들의 부채는 각종 특혜를 주어 탕감하고, 그 피해를 전국민에게 전가시키면서까지 특별금융을 풀어 구제책을 마련하

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소값 폭락으로 소 용자금 상환능력을 잃은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은 왜? 마련하지 않는가!

현재와 같은 농가경제와 농업생산 기반의 황폐화는 440억불이 넘는 외국 빚더미 속에서 불균형과 외국예속심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이행함으로써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건전한 국민경제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농민의 절실한 당면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천만농민과 함께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울 보리 수매가는 본회가 이미 건의한 바와 같이 생산비와 지난 4년간의 보리농사 적자를 보상하는 선에서 다시 조정하라!
1. 소사육 농가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입식용자 원리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하라!
1. 외국 농축산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수매가 결정에 농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곡가심의 기구를 설치하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 본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상의 성명서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그 뜻을 같이 하며 당면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

—소를 몰고 항의 시위

소값 폭락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사육 농민들의 집단적인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구내 농촌분당에서 소위 소몰이 시위가 한창이다.

□ 소값은 똥값, 소값은 개값

고산에서는 지난 7월 19일, 고산분당을 중심으로 운주, 화산, 비봉, 동상, 고산면 등지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몰고나온 소 101마리와 경운기를 앞세우고 소사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날 소사육 피해 농민들은 “정부는 소사육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머리띠와 프랑카드를 들었고, 시위에 합세한 소들도 “소값 똥값, 소값 개값”이라고 쓴 띠를 등허리에 두른채 정부의 잘못된 축산정책, 농업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외쳤다.

일반 주민은 물론 부근의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한 이 시위에 전주에서 급파된 수많은 데모집단 경찰도 무력했다. “허긴 너무도 당연한 요구에 무엇을 더 어찌하겠단 말인가?”

□ 3명의 농민, 연행 구류

이어서 26일 진안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무주·진안·장수·장제지구 농민단합대회가 기관의 방해로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몰이 시위가 된 것- 예정대로 단합대회에 참가하려던 각 공소 농민회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방해, 회유에도 불구하고 산골 구석구석에서 어렵게 몰고 나온 소 31마리와 경운기를 앞세우고 국도를 따라 행진하여 진안 읍내에 진입, 시위를 벌인 것-.

도로와 시가지를 행진하며 정부의 잘못된 축산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 등 유인물을 수많은 주민과 지나는 차량 등에 배포했다.

진안성당에 모인 농민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농민 주장을 천명하며 행정당국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진안 군청으로 향했다. 전투경찰들에 의해 도로가 강력하게 봉쇄, 차단되었으나 결국 진안군수와 면담, 군수의 피해 농민들의 요구를 성실히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일 저녁 귀가중이던 농민 41명이 길에서 체포 구금되었다가 세시간 후에 석방되었지만, 이튿날 새벽, 이번 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몰이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농민회원 세명이 연행되어 구속되었고 구류처분을 받아 경찰에 구류중이다(교석재(고산), 김두석(진안), 이광철(전 민협 사무국장)). 그의 체포 대상자는 4명이 더 있으나 아직 피신중이다.

□ 부러진 십자가와 성직자 구타

이어서 고산에서 28일 공식미사 후 400여명의 신자들이 십자가를 앞세운 평화적 가두시위가 있었는데 600여명의 전투경찰과 매치 중, 일단의 사복경찰들이 십자가를 들고 선두에 섰던 문규현 신부(교구청 교육국장)와 일부 신자들을 무차별 구타, 구둣발로 짓밟았고- 십자가는 저들의 손에 의해 두등강이 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 많은 부상자 중 세명의 교우는 고산 예수병원에 입원중이고 특히 무차별한 구타로 중태에 빠진 문규현 신부는 현재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당시 농민교우 34명을 연행, 북전주 경찰서에 감금 후 오후에야 석방했으나 당일 저녁 8시경 고산·진안·부안·임실 등지에서 농민회원들이 가톨릭 센터에 속속 집결-
“신부님을 폭행한 경찰을 색출하라”
“정부는 소값 피해를 보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재 농성중에 있다.


1. 교구 전체 전모임 : 11일 오후 2시30분, 센터 교육관에서 (특히 전국 마리아 빨리에 참석하신 분은 전원 참석 요망)
 2. 26차 어린이양들의 모후 소년푸리아(전주지구) : 11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L·M회의실, 대상-전주지구 각 pr간부들 참석 요망
 3. 이리 익산지구 어린이 신앙대회 :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5일-이리 시민문화회관
- 축! 영명 : 성도미니피(8일)-강인찬 신부님 영명
성라우렌시오(10일)-박진량·범선배·전대복 신부님 영명 축하합니다

요십이(626) 김병우


신문을 모두
훑어보고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았으나



26일 진안에서 농민회원이
소값 때문에
데모한 기사는
한마디도
없구나!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은 짚대로
못 짚는 법이요!



十 삼가 弔意를 표합니다

-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 황인규(마태오) 신부님의 부친 황희춘(마르띠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 7월 29일 오후 4시 박문규(미카엘) 신부님의 어머니 배마리아께서(박진량 신부 조모) 별세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밝은 눈, 맑은 눈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2-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6-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대의원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도회 임원님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여름 성경학교 오늘 끝납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모회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본당 울트라아: 오늘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4. 예수성심회 릴레회: 6일, 어머니미사 후
 5. 예비자 2단계 예식: 다음주 오전 10시에 합니다
 6. 노송 산간학교 평가 및 보고회: 일시-4일오후 7시
장소-본당 교육관
사도회 임원 많은 참석 바람
 7. 전자우편 기금 신입합니다
6구좌-한갑용, 4구좌-이양자·박홍주, 1구좌-문순완·정태래사·박복용·강태진·김순희·성겸순·서정금·박규철·이옥래·윤오순·정정순·이경화·황명진·임인준·이순연·임덕희·진기성·노재순·김정순·정금순·형성희·고삼래·최낙래·김옥자, 계-190,000원
누계-1,705,000원
 8. 공소 회장단 회의: 6일 오후 3시, 황윤리공소에서
 9. 공소 순회미사: 10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10. 금주의 전례담당: 제2조, 차주는 제3조가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1,240원 교무금: 504,000원
신축금: 171,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3. 성삼회: 10일
 4. 주일학교 방학
 5. 어린이 하계 성경학교·중고생 수련회: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교리교사 수련회: 8일~10일
 7. 사무장 휴가: 6일~10일
 8. 교무금 미수되신분들 완납 바랍니다
 9. 반회합: 8일 저녁 8시(저녁미사 없음)
다4가1반-이수녀님(김안나), 다4가2반-신부님(조마리아), 다4가3반-김수녀님(신발바라)
 10. 성모승천 축일 대비 성가연습
8일~10일 오전 9시~11시 빠짐없이 나오세요
 11.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차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12.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갑진 ③김운자
차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장기연 ②장세시리아
- 지난주 봉헌금: 175,170원 교무금: 414,4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구역 대의원회: 공식미사 후

2. 첫영성체 교리: 14일까지
 3. 본당 회장계: 9일 오전 9시, 백암리 하천에서
 4. 감사: 여름 성경학교 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본당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다: 교무금 납부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16,240원 교무금: 3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자모회: 6일 오전 10시30분
 2. 반장님 릴레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4. 성삼회: 13일 오후 2시
 5. 금주전례: 해설-김광수·김은경
독서-①함문권 ②한상철, 기도-셋별pr
차주전례: 해설-신영창·문미옥
독서-①김상곤 ②송남용, 기도-바다의 별pr
- 지난주 봉헌금: 일반-426,845원 중·고생-16,180원
주일학교-3,680원, 계-446,705원
교무금: 369,5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3.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5. 주일학교 자모회: 6일 오전 11시
 6. 다음주 봉헌 담당: 이영태 부부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김희진, 독서-①최병래 ②이영화
공미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 지난주 봉헌금: 830,570원 교무금: 307,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석
수녀원 2-4804

1. 8월 15일 열세 예정자 특강: 12일~14일
저녁 8시~9시30분
2. 미사시간 안내

요 일	시 간	
토 요 일	오후 4시, 저녁 7시30분	어린이미사 토요특전미사
일 요 일	새벽 5시30분 9시, 10시30분 저녁 7시30분	
월·수·목	새벽 5시30분	
금	오전 10시	어머니미사

3. 오늘: 사도회-11시30분, 꾸리아-오후 2시
 4. 구역기도 모임: 1단지 6동 205(김마리아 맥)
6일 오전 10시
 5. 건축현금(납입자)
20만원-서민석, 10만원-윤영옥·익명, 5만원-장삼순·익명, 3만원-전경순·김정자, 2만원-이순남·김성녀, 1만원-유영화, 7천원-강지원 5천원-임옥순
- 지난주 봉헌금: 464,515원 교무금: 432,000원
건축현금: 622,000원